



수능 D-10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3일 광주 남구 진월동 대성여고 3학년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실전감각 유지…시험 시간표 짜서 리듬 조절”

수능 D-10 마무리학습 전략

오는 13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은 수험생들에게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최종 점검하고, 실전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올해 수능시험은 의대정원 원점복귀(±1509명), 과탐필수기준 폐지 대학 확대에 의한 자연계열 지원자 사회탐구 선택 심화(사탐런), 전공 자율선택(무전공) 선발 확대, 첨단학과 증원, 정시 모집 다군 모집 대학 확대 등 다양한 입시 변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경향으로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 충족과 정시 수능등급 확보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수능시험이 끝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시험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첫째, 남은 기간 수능 시간표에 맞춰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면서 실전 감각을 키워야 한다.

의대정원 원점복귀·과탐필수기준 폐지 확대 ‘사탐런’

무전공 선발 확대·첨단학과 증원 등 다양한 입시 변수

EBS·연계교재의 직접 체감률이 높은 만큼 수능 특강과 수능완성을 꼼꼼히 점검한다. 국어와 영어는 문항보다는 지문이나 자료를 활용해 출제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문항에 대한 학습보다는 분석노트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력을 키운다.

수학은 개념과 원리 학습이 가장 중요하므로 새로운 내용에 대한 공부보다는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꼼꼼히 복습한다. 한국사와 탐구는 단문문학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과목별 특징과 보기 자료를 정리하며 마무리한다.

둘째, 정해진 시험시간 안에 자신만의 문제풀이 순서에 익숙해지도록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능시험은 오전 8시40분 1교시를 시작으로, 탐구영역은 오후 4시37분에, 제2외국어/한문 선택자는 오후 5시45분에 시험이 끝난다. 각 수험생은 선택과목 등을 고려해 시험 리듬을 조절해야 한다.

수능시간표를 짜서 각 영역의 문제풀이에 걸리는

시간을 체크하고 정해진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계속한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좋다.

집에서 하는 실전 모의고사 연습도 실제 수능시험을 치른다는 마음가짐으로 모르는 문제는 과감하게 넘어가고, 쉬운 문제부터 푸는 훈련을 한다. 이러한 연습을 실제 수능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여분의 시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셋째, 익숙한 교재로 반복 학습한다.

새로운 교재에 도전하기보다는 익숙한 교재로 학습습도. 자신에게 취약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와 파악해 집중 공략한다. 취약한 부분의 기본 개념을 정리하고, 문제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는 전략적 학습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1개라도 더 맞히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수능은 1점 차이로 등급이 나눌 수 있다. 자신의

성적이 등급컷에 가깝다면 1개 문제라도 더 맞는 것이 중요하다. 더 맞히기 위해서는 실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부분 수험생이 수능시험에 대한 압박감으로 평소보다 실수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하되, 계속 틀리는 영역보다는 개념 학습을 끝내고 문항 유형을 반복 학습하는 것이 낫다.

넷째, 목표로 하는 대학의 수능 영역별 가중치를 고려해 공부한다.

수시모집에서 자신이 지원한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점수 향상 가능성이 높은 과목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한다.

정시모집은 대학마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다르므로 가중치를 고려해 비중 높은 영역을 집중 공략한다.

중위권 대학 중에는 특정 영역에 가산점 부여 비율이 높은 대학이 있으므로, 목표로 하는 대학의 수능 반영 정도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다.

이 밖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남은 기간 적절한 운동과 산책, 명상을 하며 안정적으로 신체리듬을 조절하고, 수면시간, 식습관 등

도 일정하게 유지해 정서적 안정을 유지한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불안감이 커질 수 있으므로 학부모와 교사 등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정용희 경진여고 진학부장은 “조급한 마음에 밤샘 공부를 하거나 과도하게 카페인 음료를 섭취하는 것은 자제하고 저녁에 숙면을 취해야 한다”며 “수능시간표에 맞춰 영역별 실전 연습하고, 시험 전날에는 수험표, 시계, 신분증 등을 미리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수능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철저한 건강관리로 마지막까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수험생들이 시험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력을 높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오는 13일 오전 8시40분부터 광주 40개 시험장 645실, 전남 7개 시험지구(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담양·해남)의 총 46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수능 응시자는 광주 1만7731명, 전남 1만4952명이다.

김민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내년 전남 학교에 ‘2030교실’ 110개 구축한다

도교육청, 교사·학생이 희망하는 ‘수업 대전환’ 주력

10일 교육연구정보원서 ‘초등 2030교실 설명회’ 개최

내년 전남의 유·초·중·고등학교에 110여 개의 ‘2030교실’이 추가로 구축된다.

전남도교육청은 3일 “2026년 110개 내외의 ‘2030교실’을 추가로 선정해,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 변화를 통해 전남 수업 대전환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전남 ‘2030교실’은 학생인구 감소와 교육격차 심화 등 전남이 직면한 2030년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남교육의 핵심 사업이다.

올해 유아 51개, 초등 43개, 중등 39개 등 총 133개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공교를 통해 유아 30개, 초등 40개, 중등 40개 등 총 110개 내외를 추가로 선정한다.

도교육청은 올해 운영 중인 133개 2030교실의 내실화를 꾀하는 동시에, 내년에는 현장 맞춤형 체계적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기본형, 맞춤형, 지속형으로 구분된 지원 체계를 유지하되 학교의 여건과 단계별 성장 수준에 따라 운영 형태를 다변화한다.

기본형은 교사의 수업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시공간을 초월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이웃 학

교, 국외 학교와 연결하고 언어의 장벽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수업을 지원한다. 맞춤형은 ‘미네르바 교실’, ‘감수성교실’, ‘포마시인교실’처럼 교사의 교육 철학을 반영한 수업브랜드형 교실로, 학생들의 배움의 깊이와 다양성을 확장한다.

지속형은 올해 조성된 교실을 중심으로 학습공동체 운영과 수업나눔, 연구회 활동을 이어가 교사 간 성장을 촉진하고, 학교 현장에서 살아 있는 수업 변화를 만들어간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각 학교의 여건과 수업 특성에 따라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맞춤형은 학교의 수업브랜드와 교실 상황, 학생 수를 반영해 예산을 지원하며,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주도형 수업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2030수업교사’, ‘2030수업연구회’를 구성해 수업 연구와 수업 나눔이 확산되도록 지원하며, 국내외 교육기관과 공동수업을 운영하는 ‘2030수업교류’를 통해 교원의 글로벌 교육 역량을 높인다.

특히, 전남 2030교실의 롤모델 역할을 하게 될 ‘2030교실 인증제’를 운영한다. 인증제는 우수 교실을 선정·인증해 교사의 지속적 수업 연구를 장



김대중 교육감이 지난 7월 9일 화순오성초 2030 미네르바 교실에서 남극창보고과학기자, 2030수업교사와 공동수업을 하고 있다.

려하고, 현장의 성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교사의 수업 철학이 교실 속에서 드러나도록 ‘수업브랜드 갖기’ 운동도 추진한다. 교사별로 자신만의 수업 브랜드를 만들고 이를 ‘수업 맛집 가이드 맵’으로 시각화해, 학교마다 고유한 교육 정체성을 세워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전남교육청은 오는 10일 오후 3시

전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서 ‘초등 2030교실 설명회’를 열어 2026학년도 2030교실 운영 계획과 선정 방법을 안내한다. 설명회는 운영 방향 안내와 사례 나눔, 신청 절차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교직원들은 공문 및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당일 행사는 유튜브 ‘전남교육1TV’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김대중 교육감은 “2030교실은 교육에 헌신해 온 교사들이 자신의 수업 철학을 학교 안에서 실현하고, 그 노력이 다시 학교의 변화로 돌아가는 공간”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교사들의 열정과 전문성이 교실 속에서 빛나고, 그 힘이 전남 수업 대전환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joinus@gwangnam.co.kr